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7/12/13

2017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코미디언/개그맨, 스포츠선수에 이어 오늘은 영화배우, 이후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7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7년 11월 8~28일(3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31% (총 접촉 5,400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17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택시운전사> 송강호 - 2위 <범죄도시> 마동석
- 최근 몇 년간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 송강호는 30대 이상, ‘마블리’ 마동석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일수록 인기

2017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택시운전사> 송강호 - 2위 <범죄도시> 마동석

한국갤럽이 2017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송강호**가 35.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는 2014년 故 노무현 대통령 일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의 ‘송우석’, 2015년 <사도>의 ‘영조’, 2016년 <밀정>에서 의열단을 돕는 조선인 일본 경찰 ‘이정출’, 2017년은 우연히 만난 독일 기자 ‘피터(토마스 크레취만)’와 광주로 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목격하는 평범한 택시운전사 ‘김만섭’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택시운전사>는 역사성과 교훈,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한 것으로 평가되며, 2017년 천만 관객을 돌파한 유일한 영화다.

매해 개봉작은 한 편뿐이지만 5년 연속 1, 2위를 지켜 그를 향한 팬들의 두터운 신뢰가 다시금 입증됐다. 2008년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2013년에는 <설국열차> <관상>으로 ‘올해의 영화배우’ 1위에 오른 바 있다.

2위는 **마동석**(17.8%)으로, 10월 개봉작 <범죄도시>에서 오직 주먹 한 방으로 도시의 평화를 지켜온 괴물형사 ‘마석도’ 역을 열연했다. <범죄도시>는 애초 큰 기대를 받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7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모았다. 강렬한 인상에 부드러운 인간미를 겸비한 반전 매력으로 ‘마블리’라 불린다. 최근작 <부라더>에서는 코믹한 연기를 펼쳤다. 작년 10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3위 **이병헌**(12.6%)은 국내외 행보를 병행하는 글로벌 스타다. 작년은 <미스컨덕트>와 <매그니피센트7> 등 해외 활동에 주력했고, 올해는 <남한산성>에서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 역으로 깊은 내면 연기를 선보였다. 2009년 <지아이조-전쟁의 서막>,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올해의 영화배우’ 1위였다.

4위 **황정민**(8.1%)은 2015년 <국제시장> <베테랑>으로 각각 천만 이상 관객을 모았으며, 2016년 <검사의전>, <곡성>, <아수라> 세 편에서 강렬한 연기를 펼쳐 1위에 올랐다. 올해 <군함도>에서는 경성 반도호텔 악단장 ‘이강욱’ 역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를 보였다.

하정우와 설경구(6.3%)가 공동 5위다.

하정우는 2016년 <아가씨>의 사기꾼 백작으로, <터널>에서는 평범한 가장이자 자동차 세일즈맨 ‘정수’ 역을 맡아 ‘1인극’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올해는 <신과 함께-죄와 벌>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12년부터 6년 연속 ‘올해의 영화배우’ 5위권에 들어 ‘믿고 보는’ 배우로 안착한 듯하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설경구는 2003년 <실미도>, 2009년 <해운대>가 천만 관객을 넘어 흥행성도 인정받았다. 올해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한재호’ 역으로 연기 변신해 일명 ‘불한당원’이란 매니아층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제가 됐고, 이후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도

기억과 망상 사이를 오가는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7위는 작년 <밀정>, <부산행>에 출연한 **공유**(6.2%),
8위는 <군함도>에서 광복군 소속 OSS 요원 역을 맡은 **송중기**(5.8%),
9위는 국내 정치 현실을 투영한 올해 초 개봉작 <더 킹>의 **정우성**(5.2%),
10위는 <택시운전사> 황기사 역의 **유해진**(5.1%)이다.

그 외 최민식(4.2%), 김혜수(3.8%), 현빈, 윤계상(이상 3.1%), 나문희, 한석규(이상 2.3%),
조진웅, 이정재(이상 2.2%), 김주혁, 전지현(이상 2.0%) 등이 20위권에 들었다.

▶ 2017년을 빛낸 영화배우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올해 대표작
1위	송강호	35.0	<택시운전사>
2위	마동석	17.8	<범죄도시> <부라더>
3위	이병헌	12.6	<마스터> <싱글라이더> <남한산성>
4위	황정민	8.1	<군함도>
5위	하정우	6.3	2016 <아가씨> <터널> / 2017.12 <신과 함께-죄와 벌>
-	설경구	6.3	<루시드 드림>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살인자의 기억법>
7위	공 유	6.2	2016 <밀정> <부산행>
8위	송중기	5.8	<군함도>
9위	정우성	5.2	<더 킹>
10위	유해진	5.1	<택시운전사>

질문)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7년 11월 8~29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최근 몇 년간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최근 몇 년간 남배우들이 ‘올해의 영화배우’ 상위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에서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이후 여배우 순위 최고 기록은 2009년 하지원(4위), 2010년 김혜수(7위), 2011년 김하늘(4위), 2012년 김혜수(3위), 2013년 김혜수(7위), 2014년 전지현(11위), 2015년 전지현(4위), 2016년 전지현(9위)이다. 올해도 2014년처럼 10위 안에는 여배우 한 명도 없고 김혜수(12위), 나문희(15위), 전지현(19위)이 20위권에 드는 데 그쳤다.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 최근 11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전도연(49.7)	송강호(13.1)	이병헌(20.1)	원 빈(30.7)
2위		송강호(16.5)	손예진(11.3)	장동건(17.9)	장동건(14.4)
3위		배용준 (6.4)	김혜수 (7.4)	설경구(17.5)	강동원(11.6)
4위		안성기 (6.4)	전도연 (7.3)	하지원(14.3)	이병헌 (6.4)
5위		설경구 (5.0)	장동건 (7.3)	정지훈 (8.3)	송강호 (5.6)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원 빈(11.3)	이병헌(37.6)	송강호(22.5)	최민식(42.3)	유아인(26.9)
2위	박해일 (9.5)	송중기(15.0)	하정우(18.9)	송강호(22.2)	송강호(20.3)
3위	장동건 (8.8)	김혜수 (7.6)	이병헌(18.0)	류승룡(10.5)	황정민(16.1)
4위	김하늘 (8.2)	장동건 (7.4)	류승룡(10.1)	하정우 (9.0)	전지현(14.2)
5위	공 유 (5.8)	하정우 (6.4)	설경구 (7.4)	이병헌 (4.5)	하정우(11.8)
순위	2016년	2017년			
1위	황정민(21.2)	송강호(35.0)			
2위	송강호(18.4)	마동석(17.8)			
3위	공 유(12.7)	이병헌(12.6)			
4위	하정우(11.4)	황정민(8.1)			
5위	유해진(10.8)	하정우, 설경구(6.3)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송강호는 30대 이상, '마블리' 마동석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일수록 인기

연령별로 보면 10·20대는 송강호와 마동석을 비슷하게 꼽았고,
30대 이상에서는 송강호를 더 많이 응답했다.

▶ 2017년을 빛낸 영화배우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송강호	(2위) 마동석	(3위) 이병헌	(4위) 황정민	(5위) 하정우	(5위) 설경구	(7위) 공유	(8위) 송중기	(9위) 정우성	(10위) 유해진
전체	1,700	35.0	17.8	12.6	8.1	6.3	6.3	6.2	5.8	5.2	5.1
성 남	846	34	21	13	8	6	6	6	6	5	5
별 여	854	36	15	12	8	7	6	6	6	5	5
연 13~18세	122	24	25	7	6	7	3	9	8	2	7
령 19~29세	276	29	27	12	8	9	6	9	7	5	5
별 30대	274	41	19	15	8	6	7	6	5	5	7
40대	322	39	19	13	11	7	9	6	6	6	6
50대	314	38	15	13	9	4	7	8	6	6	5
60대이상	393	33	9	12	6	6	4	3	4	5	3
남 13~18세	63	24	29	8	4	5	4	9	8	3	8
19~29세	145	27	29	11	9	8	6	7	8	4	5
30대	140	40	23	17	8	6	8	6	5	4	6
40대	163	36	22	14	12	7	6	7	5	8	5
50대	158	37	16	13	7	3	7	7	5	7	6
60대이상	175	36	13	10	5	7	4	2	6	5	5
여 13~18세	58	24	20	7	9	10	1	9	9	2	6
19~29세	131	31	26	13	8	9	6	10	7	6	5
30대	134	41	15	13	9	5	6	7	6	7	9
40대	158	42	16	12	9	8	12	5	7	5	6
50대	156	38	13	13	11	5	7	8	6	5	5
60대이상	218	32	6	13	6	5	4	3	3	4	2

문) 2017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7년 11월 8~28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